



설 명절을 앞둔 5일 광주 광산구 우편집중국 물류 집하장에서 직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배송물품을 분류하느라 밤샘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하루 광산구 우편집중국 물류 집하장에서 처리한 물품은 11만개에 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대선패배 책임져라” “민주 독점구도 깨자”

대선 패배를 계기로 그동안 민주당의 반방에 머물렀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류 세력의 각성을 촉구하는 과감한 문제 제기과 스스로를 상할하는 낮은 자세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계기를 마련해 나간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행보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5일 황주홍(강진·장흥·영암)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선거 패배의 각 계파에 줄 서기를 하는 등 퇴행적 모습을 보여 왔다”며 “민주당이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는 호남 정치권의 각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내 위상도 점차 강화되는 한편 소통의 창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18일 회동을 갖고 차기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는 호남 주자들의 단일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 패배로 지역 민심은 크게 상처를 받은 상황”이라며 “지역 민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이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광주 고교 강제배정 피해학생 구제책 없더니...

### 시교육청 “불가”... 시의회, 청문회 추진 학부모 “책임자 문책... 교육감 소환 불가”

광주지역 고교 강제배정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현실적 대안이 없다”며 구제책을 일축했다. 광주시의회 등은 청문회 추진과 함께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고교 강제배정 사태와 관련, “구제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제 전례가 없는데다, 자칫 교육현장에 혼선과 부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구제책으로 제안된 ‘강제 배정 학생간 1대 1 맞교환’에 대해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뚜렷해 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A고교와 B고교의 선호도가 달라 1대 1이 아닌 ‘1대 3’이 될 수 있고, 경쟁이 가열되면 뒷돈 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한 차례 1대 1 교환 방식을 채택했는데 뒷돈 거래 등 부작용이 심각해 폐지했다”며 “학교 선택을 사고 파는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학군 분할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고등학교가 남구에 몰려 있고 학부모들도 남구를 선호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예견된 방식을 강행한 데다 사태 후 구제 대책도 내놓지 않

자, 광주시의회와 학부모들은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박인화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강제배정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예견된 사태를 강행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단체는 교육감 소환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제가 예견됐지만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했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교육감 소환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프랜차이즈 빵집·식당 확장 발 묶인다

### 제과점·음식업 등 16개 업종·품목 중기 적합업종 지정

제과점업과 음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앞으로 이 분야의 대기업 확장과 신규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골목가루 등 제조업 2개 품목을 포함해 모두 16개 업종 및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

정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네빵집 생존권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 자체와 진입 자체를 권고했다. 우선 동반위는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가맹점과 직영점) 총량을 확장 자체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

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확장 자체와 더불어 대기업은 인수·합병이나 업종 변경 등을 포함한 신규 진입도 자제하도록 했다.

권고 기간은 3월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다.

동반위는 음식점업에도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점포수의 확장 자체 및 진입 자체를 권고했다. 권고 기간은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다.

음식점업에는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된다. /연광뉴스

**광신대학교**  
2013년도 제21기  
보육교사 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마감  
2월6일(수)  
062)605-1112  
062)605-1023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C-Class  
24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HANBANG BIO | 一理**  
아름다운 태를 빛는 단 하나의 이치  
**한방 탄력케어 | 일리**  
보습을 넘어 탄력케어까지!  
토탈에이지 바디로션  
옛 여인들의 피부관리 비법과 아모레퍼시픽의 수십년간 축적된 한방바이오 과학을 담아 아름다운 태를 현대에 재현합니다